

학내기관 탐방

공과대학 학생상담센터 ‘공감’ - 윤제용 공과대학 학생부학장 인터뷰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돋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된 학생상담센터 <공감>을 방문하였다. 인터뷰에는 공감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윤제용 공과대학 학생부학장님이 참여해 주셨다.

인터뷰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연구교수

CTL: 공과대학에서는 최근 학생지도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공과대학 학생을 위한 상담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공감>을 설립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학장님: 우선 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이름은 <학생상담센터 공감>이며 <공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글로벌리더쉽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감>은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어 졸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우리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되는데, 리더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이 이러한 덕목을 잘 훈련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일까 고심하던 끝에 기획된 것이지요.



수업을 잘 듣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상호작용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혹독한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 즉 잘 노는 법이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는 익혔어야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체 정원 중 23%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캠퍼스가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부에 있는 대학생활문화원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학생들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더불어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0년 2월에 <공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CTL: <공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부학장님: <공감>에서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의 상시적인 활동 뿐 아니라, 공과대학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심리검사를 전수조사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과대학에서의 시도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본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물론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정상분포 안에 속하지만, 몇몇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상승하여 심리적 취약성이 나타난 학생들은 개별연락 후 검사해석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집단 상담 외에도 자신의 심리검사 결과가 궁금하여 해석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올해 2012년 신입생은 800명 중 532명이 심리검사를 받았고 이 중 80명이 일대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인원이 심리검사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입생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공과대학 직속기관으로 <공감>과 같은 조직이 옆에 있기 때문에 쉽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공과대학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사경고를 받은 공과대학 학생들은 <공감>에서 상담을 하도록 권유합-

니다.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만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님을 늘 강조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공감에 놀라기라”고 말합니다. ‘공감에 가는 학생들은 우울증이 있구나’라는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가서 서로의 성격도 알아보고,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통해 장학금 등 학교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 등 힘든 마음을 나눌만한 적절한 지지체계가 없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깊어지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로 발달하게 되지요. 상담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에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상담사가 하루 평균 4~5명의 학생을 만나며 1시간씩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런 역할을 학과지도 교수님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교수님들은 그만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문가로써 조력하며 때로는 선배처럼 조언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담 중에 자해나 자살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다면 센터장인 저에게 먼저 보고가 되고, 가족 및 지도교수와 협력하여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취합니다. 또한 가계곤란으로 학업지속이 어려운데 성적이 좋지 않아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학생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제가 사유서를 써서 혜택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본부의 기관을 이용한다면 문제 파악이 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기관이 공과대학 안에 있고, 제가 공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인 과정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CTL: 저희 CTL도 입학사정관전형 중 기회균형전형 신입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80명의 학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그룹을 만들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학습상담도 제공하고 스터디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공대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이 부진하여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초학력 부족에서 오는 학업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부학장님: 서울대학교 학생들 특히 공과대학 학생들이 콤플렉스가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칭찬받았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중간도 못하거든요. 어느 사회나 누군가 1등이 있으면 끌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위 그룹의 학생들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나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은 학사관리가 상당히 엄격해서, 고등학교 때 잘했던 것만 믿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학점이 뚝 떨어집니다. 기회균형전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초가 더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곳이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

도 심지어 꼴찌를 해도 잘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대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는 자기 가치의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꼭 1등을 해야만 가치 있는 나'가 아닌, '1등을 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면이 많은 나'로 말입니다.

CTL: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튜터링 제도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 부학장님: <공감>의 업무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공과대학에서 튜타 튜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튜터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튜터와 연결해 줍니다. 튜터는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로써, 40여명을 선별하고 근로장학금을 주어 활동하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필요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제 신청자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동료가 일주 일에 몇 시간씩 함께 교과목을 들으며 과제도 함께 하고 공부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인지, 적극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CTL: 기초교육원에서 지원하는 피어튜터링이나 단과대학의 튜터링 제도를 이용하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신청하려면 마감이 되어 참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윤 부학장님: 그렇게 할 경우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장학금을 학기별로 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간이라도 수요가 많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TL: 비록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공감>의 성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부학장님: 개인상담 내용이나 심리검사 결과는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 이 있어 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한 번은 저에게 면담을 받으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여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담기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학생이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나아지는지

알 수 있었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성과를 통계자료로 정리해 보았더니 올해 1월~7월 사이에 2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총 230여 시간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호소 문제를 보면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성격적응 및 심리정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홍보하고 문턱을 낮춰서 그런지 공감을 찾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 올해는 8월 현재 예년의 목표를 벌써 달성했습니다.

개인 상담 외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무용동작치료 등과 같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과대학 6,000명의 학생 중 대학원생이 2,500명으로 비중이 꽤 큽니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동료들 간, 선생님들 간 갈등이 꽤 있습니다. 갈등이 크게 표출되면 가끔 신문에 나오기도 하지요. 갈등이 크게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서 대학원생을 위한 집단 워크숍도 수행합니다.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도 다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나 성향을 파악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사 결과가 자신들이 평소 생각하던 것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CTL: 공감 외에도 공과대학의 〈공우〉, 〈공현〉 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3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른 단과대학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취지와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학장님: 공우는 공과대학의 우수학생센타를 칭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TEM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어서 “공”이라함은 공과대학 학생이 의미하기도 하지만 함께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라고 함은 친구라는 뜻도 있고 우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우수학생센터 〈공우〉는 우리 학생들이 결국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람이므로 책임감과 비전을 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과대학 학생 모두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활동하도록 합니다. 물론 공우활동을 하면서 받은 혜택은 졸업 후 학교와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공우〉는 학생들이 포럼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인사도 초청도 하고 해비타트와 같은 봉사활동을 가기도 합니다. 〈공우〉를 통해 대학사회의 개인주의 문제가 극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특히 때때로 자기 전공에만 매몰되는 이공계 지식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과, 문과로 나누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과대학 학생들도 문과적인 소양을 훈련하고 글과 말에 능하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갖추어, 명실공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TL: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학생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윤 부학장님: 무척 우수한 학생을 서울대가 받아서 우리사회에 귀중한 인재로 키워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아주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래서 교수가 되려는 학생에게만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학생 개개인의 재능에 맞게 역할을 나눠, 모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분야에 전공 논문을 몇 개 더 쓰다고 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대 교수가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인데,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비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연구 부담이 큰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나가야 하는데,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낙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입학생의 5% 이상은 그냥 사라집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력의 손실이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쏟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도 학생부학장이라는 보직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과대학에 비슷한 관심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우수한 교수님들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산업체와의 연계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강의가 탁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TL: 공과대학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성과를 보여주시면 다른 단과대학으로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학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핵심적인데 학생지도로 교수님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무래도 업적 평가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